

## 광주U대회 1년 앞으로

# 저비용 고효율...조직·운영 재점검 나선다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대회 핵심 과제로 추진

민선 6기 운영현 호(號)가 개막 1년(2015년 7월3일)을 앞둔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의 운영 방식을 저비용·고효율, 남북 단일팀 구성, 청년일자리 연계 등을 3대 핵심 과제로 전환하고, 대회 조직 등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23면>

특히 민선 6기 시정 방침이 대규모 토건사업이나 대형 행사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독자 U대회 정책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현 광주시장은 2일 "U대회에 광주시 예산이 4000억원 가까이 투입되는데, 이 예산이면 청년일자리 1개 당 5000만원씩만 잡아도 8000개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식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한 대회 운영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발언은 민선 6기 인수위원회인 희망광주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서도 제기된 문제로, 저비용 대회를 치르겠다는 의의가 풀이된다.

실제 준비위의 '민선 6기 시장직 수행을 위한 최종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전 세계 대학생 축제의 U대회는 성격상 대규모 관람객이나 관광객 유치에 어려운 만큼 과도한 국외 홍보 등 낭비성 홍보는 절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U대회 조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예산 등을 재검점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 개편 등 전면 재점



**테니스장 공사 한창** 광주시 남구 진월동 체육시설지구에 들어서는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테니스장이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총사업비 410억원이 투입되는 국제테니스장은 연면적 2만168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메인코트 1면(3230석), 쇼코트 1면(650석), 서브코트 8면이 조성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점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U대회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예산절감 방안 찾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U대회 조직 정원은 370명으로 승인받은 만큼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인원이나 조직 축소보다는 예산절감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회비용 절감의 핵심키인 광고주 등 스폰서 기업 유치 등이 별다른 성과를 내

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질책과 함께 강도높은 대책 마련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단일팀 구성도 본격화된다. 특히 운영현 광주시장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이사장을 지내는 등 남북 민간 교류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시장은 또 좋은 일자리 1만개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

으로 내세운 만큼 U대회 개최기간 동안 창출되는 단기적 일자리가 아닌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민선 6기의 핵심은 시민 중심, 사람 중심"이라면서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U대회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도록 썼으면 하는 게 윤 시장의 뜻"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새정치, 광주·전남 재보선 경선구도 '요동'

광산을 '중진 배제론' 급부상

광주·전남지역에서 치러지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우선, 광주 광산을 재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유력 주자로 꼽혀왔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경선 배제론이 2일 급부상했다. 4선 중진의원 출신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도부는 정치적 뒷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

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는 전 전 의원의 '명예로운 회관'을 위해 일방적인 경선 배제 발표보다는 당을 위해 불출마 결단에 나서줄 것을 설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밤 8시에 열린 예정이었던 공관위원회 회의는 3일로 연기됐다.

유력 주자였던 전 전 장관이 경선에서 배제되면 광산 을의 경선 구도는 극도의 혼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전 장관은 "중진이라는 이유로 경선

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민주적 전횡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순천·곡성 지역구에서도 경선 방식을 문제 삼아 구회소 예비후보가 공천 신청 철회의 배수진을 쳤다.

구 후보는 이날 "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천 신청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화순 지역구에서는 박선원 경선 후보가 신정훈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이에 따라 나주·화순 지역구 경선은 당초의 5자 구도에서 4자 구도로 재편됐다.

담양·장성·함평·영광 지역구의 후보 컷-오프는 3일 공관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김홍석 전 의원의 경선 참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승용 사무총장은 "전 전 장관의 경선 배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3일 공관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경선 방식을 지금에 와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선 후보 사퇴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일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알립니다

### '광일춘추' 새로운 필진을 만나세요

전국 대표 지방 정론자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국내 정상급 필진을 모시고 공동 게재하는 목요일컬럼 '광일춘추'의 진용이 새롭게 바뀝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매일신문·경인일보·경남신문·강원일보·대전일보·

전북일보·제주일보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8개 신문사는 각계 전문가로 필진을 구성해 우리 사회 전반의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 바랍니다.



김동욱 교수    윤재웅 교수    박경훈 교수    김도연 소설가

- ◇김동욱 서강대학교 교수  
▲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심의위원
- ◇윤재웅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문학평론가
-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경북대 조경학과 졸업 ▲환경문제 전문가
- ◇김도연 소설가  
▲강원일보 신춘문예(1991년) ▲경인일보 신춘문예(1996년) 당선

光州日報社

## 일본 '전쟁 국가' 부활 강력 경고

오늘 한·중 정상 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과 북핵문제 등을 논의한다.

부인 평리위안(彭麗媛) 여사의 동행 속에 1박2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을 띤다.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에 있어 한중간 북핵 불용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라는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며 "한중일 3국 협력발전 추진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대한 협의 강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강화 등을 논의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시 주석의 방한에는 부총리급 인사 3명과 장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총 80여명이 수행하며 중국의 다수 대기업 CEO를 포함한 200여 안팎의 경제계 인사들이 동행한다.

무엇보다 두 정상이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담을 지 주목된다. 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훼손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도발에 대한 공동대처와 강력한 경고를 담은 메시지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흥건설  
기원신용평가  
AA

2014 한국경제  
주거환경대상  
총합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실업률연계  
최우수상 수상

## 혁신도시 마지막 프리미엄!

# 광주·전남혁신도시 고품격 임대아파트

## 중흥S-클래스 리버티



단일면적 84㎡    전세대 4-BAY    중흥대지 698세대    고품격 커뮤니티

**7월 4일**  
오픈

문의 062-364-0001

▲ 중흥산업개발    ▲ 중흥건설

혁신의 프리미엄을 완성하는 명품 임대아파트

## 중흥S-클래스 리버티

광주·전남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리버티

토지이용  
계획도



센터빌 1차 아파트(993세대)  
메가티움 1차 오피스텔(1,227세대)  
센터빌 2차 아파트(721세대)  
메가티움 2차 오피스텔(1,256세대)

84㎡ 단일 | 698세대 중흥 대단지

문의 062-364-0001

▲ 시청    ▲ 중앙    ▲ 동문고거리    ▲ 동문고거리

광진동 중흥버스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고원공제회관    모담하우스

○-구리    ○-금호동    ○-리버티    ○-리버티

▲ 중앙    ▲ 동문고거리    ▲ 동문고거리